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in Family Studie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金慶信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yeong-Shi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I. 일반 이론의 발달 및 가족 연구에의 적용 |
| III.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appraisal of current theorizing process through the review of family studies. Also it shows the outlines of five sociological general theories and how to apply them to family studies.

The field of family studies entered a new stage in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Especially the decade of the 1970s was a period of rapid development in family theories because middle-range theories were developed.

Currently identified major conceptual frameworks of family studies are five sociological general theories. Exchange theory was utilized in several studies and the problems could have been conceptualized in a way that would have tested the general theory of rewards, costs, and profits, but in most instances the theory was developed at a limited substantive level.

Symbolic interactionism is the most useful in understanding precarious human relationships, such as courtship process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family roles, and powers.

General systems theory have been provided generalization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 family systems and also useful in describing the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functioning of a family along a continuum of open to closed.

Conflict theorists point that the basic units of society comprise all persons who share a sense of status equality and there are continual struggles in society for various goods. This theory attempts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within the family of norms of equity, or fairness.

Phenomenology becomes available when we cease to treat an object as real, and begin to treat the object as meant, as intended, as it appears. Therefore the formulation of an adequate and complete description of family is important.

Family theorists must be urged to do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continuing to improve existing theory and continuing to develop metatheory and methodologies of building theory.

I. 서론

가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친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선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나, 과학적 연구를 행하는데는 오히려 이러한 점이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체계는 광역사회 구조와 복잡한 변인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인은 사회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여러 학문 분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이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역동적인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가족 지향적 가치의 변화나 결혼과 가족 형태의 폭넓은 다양성 등은 가족에 대한 연구 방향의 정립에 곤란을 줌과 동시에, 새로운 관심 분야를 끊임 없이 창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가족학에 있어서도 이론의 정립이 매우 귀중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간은 항상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가족의 행태 역시 지속적인 논리성과 규칙성으로 설명되어지기 위하여 가족에 연관되는 광범위한 요인들이 실험적으로 탐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탐구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가족학 분야의 연구는 이론 정립의 과정에 있다.

가족학의 이론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그 필요

성이 대두되고 또한 이론화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5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57년에 Hill 등이 발간한 가족학 연구 목록을 시작으로, 이어서 Goode의 연구(1957) 등에서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에 적용되는 개념적 준거라 할 수 있는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의 파악과 이론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개념틀의 적용은 연구 과정상 필연적인 것으로, 일련의 명제들이 개념틀 속에서 해석되어야만이 연구 및 이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이론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이다.

Hill(1957)은 초기에 가족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틀로, 제도적, 구조기능적, 상호작용적, 상황적, 학습발달적, 가정학적 개념틀을 제시하였는데 앞의 네가지는 사회학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학습발달론은 아동심리학자들에게, 가정학적 접근은 가정학자들의 연구에 적합한 것이라 하였다. 그 후 가족발달적 개념틀을 추가하였고, Hansen과의 공동 연구(1960)를 통하여 가족 아닌 개인에 초점을 둔 학습발달론과 연구량이 충분치 않은 가정학적 접근법은 제외하고 다섯가지의 개념틀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틀의 정립은 1960년대 가족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Holman & Burr, 1980:731)

이후 1964년에 Christensen이, 1966년에는 Nye 등이 개념틀과 관련시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각 개념틀의 특성을 논하였다. Christensen은 상호작용론적, 구조기능적, 제도적, 발달적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상황론은 상호작용론에 포함시켰다. 또 Nye와 Berardo

(1966)는 심리분석적 접근법을 추가하였다.

Broderick(1971)은 1960년대의 가족 연구를 고찰 하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발달론만을 주요 개념들로 보았고 체계론을 새로이 강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구조기능적 관점과 제도적 접근법이 쇠퇴하고 체계론과 교환론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가족 연구에서 개념들의 분석은 1950년대 Hill 등의 연구를 통해 대부분 완성 되었고, 1960년대에는 연구 논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념들의 범위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념들을 일반화 시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변인이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제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1966년에 Hill이 명제로부터 부분적 이론을 창출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명제를 수립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결 시킬 때 이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1960년대에는 이론 형성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가족 연구 분야의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Nye, Burr 등에 의해 새로운 방법론이 출현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론 발달에 참여하여 1970년대는 이론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되었다.

1979년에 Burr와 그의 동료들이 편집하여 출간한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 II』는 가족 분야의 연구와 이론에 있어 가장 주목할만한 저서로서, 이를 위하여 1972년부터 1979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1권에서는 양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분야에 대해서, 명제를 구성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론화를 시도함으로써 추상성이 적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범위이론(middle-range theory)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가족 분야의 중범위 이론으로 비교적 정교히 구성된 이론은 배우자 선택, 가족 스트레스, 결혼의 질 등에 관한 이론이고, 초기 단계인 것은 의사소통, 세대간 지속성, 형제관계, 출산 등에 관한 이론이다(Holman & Burr, 1980:733).

Merton(1957)에 의해 그 개념이 시작된 중범위 이

론은 현실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론을 회피하려는 사회학적 경향을, 경험주의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조사와 자료에 근접하여 특정 영역의 연구 결과들을 전체적인 이론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서, 현대 사회학 이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제2권에서는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체계이론, 갈등이론, 현상학적 이론 등, 사회학 또는 사회심리학적 일반이론을 연역적으로 가족분야, 특히 1권에서 도출된 이론적 사고에 연결시켰다.

그러나 1권에서 도출된 중범위 이론과 일반이론의 통합 작업은 비교적 오랜 이론 형성의 역사를 가진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론에 있어서만이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2권에서 인용한 것은 이론이 아니고 개념을 내지는 이론적 조망(眺望, perspective)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 Wilcox, 1987:89-90).

이처럼 개념들, 이론, 이론적 조망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시점에 중범위 이론은 다양한 이론화의 출구를 개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범위 이론이 일반 이론으로 진행되기에는 의미의 비동질성, 현상의 다양성 등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1980년 이후에는 이제까지의 이론 형성 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특히 가족치료 등과 같은 임상적 분야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온 형식의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유용한 것인지 논의 되었다.

또한 가족 연구 분야를 하나의 고유한 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독립 시키려는 요구에 부응하여 1983년 Burr와 Leigh는 'Famology'라는 명칭을 제시하였고, Sprey(1990; 1991)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실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족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이론을 수용하는 다원론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학 연구는 이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향에서의 이론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이론적 사고의 형성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논리적이고 과학적

인 이론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 형성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연구자는 어떠한 선입관이나 주관적 경험에 의한 관점을 배제하고,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화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래 가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 연구자는 가족의 행태를 예측해줄 수 있는 연구의 축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이론으로의 진보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화의 필요성과 욕구에 맞추어 앞으로의 가족학 연구자의 과제가 탐색되어야 함을 증시하고, 첫째 가족학 연구 분야에서 행해진 지금까지의 이론화 과정을 추적해 보고, 둘째 가족학에 관련되는 사회학적 일반 이론의 개괄적인 발달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가족학 분야의 연구 논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미래의 가족학의 이론 전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가족학 분야의 이론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1950년대 이후 이론 형성의 과정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가족학 분야의 개념들을 제공해 준 대표적인 사회학적 일반 이론을 추출하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가족학 연구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지, 주로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헌 고찰은 대체적으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미미한 관계로 외국 문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반 이론의 방대한 내용을 축약된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서술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가족학 분야 연구에 개념틀로 선택되어 온 기타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II. 일반 이론의 발달 및 가족 연구에의 적용

이제까지 가족 연구에 개념틀로서 적용된 사회학적 일반이론은 Hill(1957)의 분류 이래 몇번의 분류상의 수정작업이 있었고, Burr 등(1979)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다섯가지의 대표적인 이론이 열거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체계이론, 갈등이론, 현상학적 이론 등의 다섯가지 일반이론의 개괄적인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 이들이 가족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 교환이론

1) 이론의 발달

교환이론은 Homans와 Blau, 그리고 Emerson에 의해 대표된다. 교환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Homans(1958)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들을 강조하며 인간은 항상 보상과 벌을 주고 받으며 교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조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현하고 이러한 기능을 상실할 때 붕괴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Homans의 원리는 인간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비용과 보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Blau(1964)는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입장이 통합된 교환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인간이 보상을 추구하는데는 개인간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거시적 사회단위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교환과정에 대한 외적 구속으로서 제도가 발생하며 규범을 통하여 형식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특성을 무시한 광범위한 거시적 시각과 거시적 사회 조직화에 대한 모호한 설명 체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lau가 강조한 교환 성립 과정상의 세 변인은 균형, 신뢰, 상호교환 정도으로써, 균형은 상대방이 소유하는 상대적 자원에 관한 것인데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항상 자원의 우세를 점유하면 상대방은 덜 개

입하고 그 관계 구조는 균형을 잃는다. 또한 교환관계에서 필수적인 전략은 스스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상호 인간적 거래에서 신뢰가 필수적인 것은 사회교환에서는 의무의 성격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클수록 공정한 교환 행위가 일어나고 더욱 발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혜적인 상호교환은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으로 부터 가져오는 보답에 의해 동기화 되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라 정의된다(Blau, 1964: 91).

Emerson(1976)은 Homans와 유사하게 심리학적 행동주의, 특히 조작 심리학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보다 개념적 엄밀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둘 이상의 행위자들의 교환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관계를 중시 하였으므로, 핵심을 개별적 행위자의 가치 문제에 두지 않고 그들 밖에 있는 사회적 변수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교환관계의 그물망 안에 있는 행위자들의 여러 적용 방식에 따라 권력의 역동성을 추적 하였다.

2) 가족 연구에의 적용

가족학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교환이론이 주요 개념틀로 등장하였고 Richer(1968), Edwards(1969), Broderick(1971) 등에 의해 확대 되었으며, 이후 각종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중요한 개념틀로 부상 되었다.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관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광역 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가족원간의 교환은 관계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러한 가족간의 교환적 특성이 감소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 선택에서 교환개념이 시작되어 부부 권력, 의사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정 폭력 등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이 광범위한 결혼과 가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배우자 선택이나 관계 형성의 과정을 설명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져 왔다. 두드러지게는 배우자 선택과 장기적 관계의 발달에 이르는 인간간 상호작용 및 교환을 다루고 있고 결혼관계의 안정성에는 오히려 덜 쓰였다(McDonald,

1981: 826). 교환이론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는 상호간에 소유한 제반 자원에 의해 보상 정도가 평가되어 선택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부부간의 권력에 있어서는 각자의 자원이 심리적,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 작용하게 된다. 가족권력과 의사결정을 연결시킨 Edwards의 연구(1969)와 부모자녀간의 권력을 분석한 Richer의 연구(1968)를 계기로 사회교환 이론은 가족권력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우세한 영역을 차지하여 왔다. Scanzoni(1979)는 권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으로서,역동적 관점인 권력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Osmond(1978)는 앞서 Blau의 이론에 맞추어 균형의 정도인 자원량이 신뢰도를 상징하는 갈등조정전략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상호교환 정도인 보상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설정 하였다. 또한 Safilios-Rothschild(1976)는 애정을 서로 평등하게 교환하는 부부가 권력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개인은 타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해주는 데 쓸 수 있는 돈, 재능, 지혜, 애정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상은 부부 의사결정에서 권력 창출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환이론은 갈등 상황의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쓰여지고 있다. 많은 성공적인 부부치료가 부부관계의 보상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결점을 극소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교환이론은 보상과 비용에 대한 초점이 명확한 부부 혹은 가족문제에의 다양성을 이해 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교환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이처럼 명확한 분석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상호관계가 개인의 지각 수준을 넘어선 보다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Mustein, Cerreto, & McDonald, 1977).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더욱 추구해가는 산업사회에서의 모 취업 문제,세대간 유사성이나 동일시에 보상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 사회 계층별 부모 행동과 가치관에서의 비용 개념 등이 교환이론과 연관된다. Newcomb(1956)은 인간관계 발달에 있어 애정, 존경, 신뢰 같은 상호인간적 보상이 관계

발전에 필수적이라 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서 이러한 보상과 비용은 과거 경험 뿐만 아니라 보상과 비용에 대한 미래의 예상도 미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wis & Spanier, 1979: 285).

Richer(1968)는 부모자녀간의 부양과 복종이 가장 기본적인 교환이라고 하였는데 부모의 가치나 권력이 이 때 조건변인으로 작용한다. 즉 부모가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일수록 부모는 더욱 부양적이 되고, 권력이 강할수록 자녀는 문화적으로 가치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단 권력이 강하고 유도적인 방법을 많이 쓸수록 자녀의 저항이 적고, 강압적인 방법을 많이 쓸수록 저항이 커진다(Rollins & Thomas, 1979: 355).

사회교환원리를 결혼관계의 연구에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제도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결혼관계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구조적이고 규범적인 압박을 받으며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의 조화를 상실하고 불균형적 교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교환관계의 유형이 가지는 또다른 특징이라 한다면, 교환관계를 가능케 하는 상호 사회적 신뢰와 개인에 대한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지향성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인 동기를 제공해주고 부부간의 간접적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부교환관계의 구조적이고 일시적인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사회교환이론은 행위자의 무능력, 비자발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교환은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기 보다는 관계 수립과 유지의 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McDonald, 1981: 837).

근본적으로 교환이론은 상호작용에서의 보상과 비용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복잡한 내적 심리 과정을 가지며 사회 구조와 문화 규범에 의해 규제되므로 교환관계는 보상이 큰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족원간의 관계는 고유의 관계망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다양한 매개변수의 해석이 가족의 특

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1) 이론의 발달

현대의 상호작용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James, Cooley, Dewey 등의 미국의 사상가들로 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여 Mead에 의해 체계화 되었고 Blumer와 Kuhn에 의해 계승되었다.

James(1890)는 주위대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감정과 태도를 개발하여 반응을 구성하는 인간의 자아 개념을 명백히 하여 자아의 유형론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개인이 타인과의 연관성에 연루시켜 개발하는 사회적 자아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자신에 대한 감정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Cooley(1902)는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개인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서로의 몸짓을 해석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아 감정과 태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특히 일차적 집단에서 이러한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Dewey(1939)는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조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형성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적용의 과정에서 정신이 사고과정으로서 나타나 사회 조직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Mead(1934)는 인간 정신과 자아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과 연관시켜 일관성 있는 개념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인간 정신이란 상징이나 언어를 통해 행위의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인간은 성숙해 감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객체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안정된 자아 개념을 획득해 나가게 되는데 이 때 역할 취동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개인의 조직화되고 유형화된 상호작용으로 사회가 구성 되므로, 구성원간 반응의 재조정 과정을 통해 사회는 계속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의 유지와 변동은 모두

개인의 역할 취득과 자아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이것의 정확한 상호작용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Blumer(1969)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능동적 창조자로서 상호작용 상황 속에 대상을 삽입 시키는 인간의 자발성을 강조 하였다. 또 상호작용의 창조성 때문에 사회 조직은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하였다. 반면 Kuhn(1964)은 인간의 인성과 사회 조직을 구조화된 것으로 보고 상호작용은 이러한 구조들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보았다. 즉 핵심적 자아의 힘과 상호작용은 집단적 맥락 속에서 제약되며 개인은 준거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2) 가족 연구에의 적용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사회 광역제도의 기원과 유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그러므로 가족에 있어서도 광역사회에서의 가족 특성보다는 특정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Turner et al., 1989: 476-477).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의 내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배우자 선택, 세대간 가치관의 전이, 역할과 지위관계, 가족 스트레스, 취업도 문제, 가족내 권력, 결혼의 질,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인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는 피드백(feedback)에 의한 개인간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데, 각 개인은 잠재적 동반자로서의 그들 스스로를 정의함으로써 두사람이 공동 참여하는 상호작용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두사람의 결정은 각각이 자신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결혼을 생각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남편이나 아내가 행동해야 할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부모나 친구, 또는 대중 매체 등으로부터 어떻게 타인들이 이러한 결혼의 역할을 해석하는지 배우게 된다.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단순한 단어도 자신이나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가는 상징이 된다.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데 있어 사람들은 상징적 해석을 공유하길 바란다. 만약 두

사람이 비슷한 기대를 갖는다면 만족은 증가할 것이다.

상호작용 이론은 세대관계에서도 사회, 역사적 힘이 세대간 전달과 같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권력은 진실을 변화시키고 결과가 좋으면 그 믿음은 진실이 되므로, 상호작용 상황에 참여하는 가족원은 권력이 작용하는 진실에 일치하게 된다(Huber, 1973: 276). 또한 가족의 역할 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모든 가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외부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도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 성원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안정성이나 갈등도 분석 되어진다.

몇몇 이론에서 사회화를 잘 정의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보는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화를 일치된 행동을 유발하도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역할 취득 과정이다(Denzin, 1969: 931). 역할은 그 의미를 다른 역할과의 관계에서 획득하며, 이러한 역할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알아야 가족 역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세대간 관계의 변화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역할 개념의 획득이 선행 되어야 한다(Mutran & Reitzes, 1984: 119).

실제로 자아나 행동 특성, 상호작용, 역할 취득과정 등의 상호작용론적 개념은 의사소통과 가족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역할의 기대와 인지, 수행간의 과정에서 준거집단과 개인이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가족내에서의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매우 큰 주목을 받게 되고 이탈행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족 폭력도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적인 상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Ferraro & Johnson, 1983: 326).

이처럼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파악하고 지위와 역할 개념을 획득해 나가는데 있어, 사회화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것을 담당하는 주도체로서의 가족의 기능 역시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의미로서의 가족의 역할은 더욱 더 탐색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가족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일반체계이론

1) 이론의 발달

일반체계이론은 여러 부분들이 이루는 복잡한 관계의 체계 안에서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시작으로, 1920년대 Bertalanffy가 일반체계론적 접근 방식을 명시한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 Wiener, Shannon, Neumann, Cannon, Miller, Boulding 등으로 그 이론의 발달이 이어졌다. 1954년 일반체계연구협회가 조직되어 체계의 공통적 특성을 찾고자 하는 학제적 노력이 시작되었고, 사회문화적 현상에도 체계 개념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Bertalanffy(1968)는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응집적인 체계들로 조직화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체계이론에서의 '부정적 엔트로피'(negentropy)를 주장하였다. 또 Kuhn(1974), Buckley(1967) 등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체계 개념들이 유용함을 입증하였으나, 상호작용론과 교환론의 개념과 명제들을 다소 더 형식적인 방식으로 개조하고 있어 체계론적인 완벽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Miller(1978)는 생명체계에는 세포, 기관, 유기체, 집단, 조직, 사회, 초국가의 7가지 수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Miller의 생명체계는 각각 위계수준을 이루고 있어 상위수준은 하위에 있는 모든 수준들로 구성된다. 즉 기관은 세포들로, 유기체는 세포와 기관들로, 조직체는 세포와 기관과 유기체와 집단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수준은 에너지, 물질,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관한 공통된 하위체계 속에서 그 자체의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하위체계는 재생산, 경계, 섭취, 분배 등 19가지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재생산 체계는 세포에서는 염색체이고 집단에서는 짝지은 쌍, 사회에서는 국회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Miller의 이론은 사회나 집단이 유

기체와 그 성질을 같이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체계론적 개념이 사회학적 개념을 정확히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문제, 그리고 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수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김진균 외 역, 1989: 509).

2) 가족 연구에의 적용

일반체계이론은 가족을 외부의 요소로 부터 구분되는 경계를 가진 하나의 체계로 본다. 가족체계는 가족원, 가족원간의 관계, 가족의 속성,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체계적 접근으로서의 가족은 가족 개개인의 행동보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와 유형을 바탕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특정 행동 유형은 그것이 나타난 인간관계 속에서 분석되고 전체적인 체계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된다.

모든 가족체계는 부부, 부모자녀, 형제들의 여러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원은 각자 한꺼번에 여러 하위체계에 소속될 수 있고 이러한 하위체계를 통해 가족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경계는 하위체계들의 가장자리로서, 효과적인 가족 기능이 일어나려면 이 경계가 분명해야 하며 어느 정도 투과적이어야 한다.

부부 각자는 각기 다른 체계로 부터 각기 다른 기대수준과 행동 유형, 역할, 부부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시작한다. 이 요인들은 부부 각자가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또한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척도로서 영향을 미친다. 물론 개인이나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의 환경 변수도 계속적으로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가정은 폐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Buckley(1967)는 끊임없이 환경과 정보 교환을 하는 개방체계를 가져야 가족의 생존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또 Cotton과 Oransky(1980) 역시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진 가족이 외부 체계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원이 체계 안에서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정보 습득이 쉽고, 결과적으로 욕구와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지 못할 때 가족원들의 기능이 미분화되고 역기능에 빠져들기 쉽다. 가정 폭력은 이러한 경직된 체계 안에서 발생한다. 또 폭력은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가족체계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

Straus(1973)의 일반체계 모델은 가족폭력에 최초로 체계적 관점을 적용시킨 시도으로써, 가족을 목표 추구적인 적응 체계로 보면 폭력은 체계의 산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Straus는 행위자나 체계의 목표 등과 연관시켜 폭력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feedback 과정을 탐색하였다. Giles-Sims(1983)는 아내 구타를 분석하여 폭력관계의 일반체계 모델을 구성하였고, Gelles와 Maynard(1987)는 폭력은 구성원들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의사소통의 시도라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가족체계의 구조적인 재배치에 의하여 폭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 이상의 인간관계가 갖는 속성으로서의 가족의 권력 역시 체계의 속성이며, 가족관계의 체계적 속성 때문에 권력은 상호교류적 방식으로 나타나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또 사회는 성이나 연령 등의 요인을 통해 가족내 권력 발달에 영향을 주며 체계내의 권력은 가족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진다.

가족의 체계나 경계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가족 생활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가족체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체계이론은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여 사고와 행동 유형을 재조직화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는 단기적일지언정 상호작용 어휘 변화, 감정 변화, 행동 변화, 심지어 자아개념 변화까지도 발생시킨다.

이처럼 가족체계는 개방체계로서 끊임없이 내적 정합이 추구되는 동시에 외부로 향하여 열려있다. 그러므로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 때,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가치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의 선택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족의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4. 갈등이론

1) 이론의 발달

갈등적 시각은 Marx와 Simmel의 이론으로 부터 지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이론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어 현대 갈등이론의 완성에 큰 힘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출현과 붕괴 과정에 관련하여 전개된 Marx(1867)의 갈등이론은 사회관계에 내재하는 모순들은 계급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것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붕괴를 설명하였다.

특정한 시대적 한계를 갖는 Marx의 이론과는 달리 Simmel(1950)은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사회 구조를 지배와 복종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능에 의존한 다양한 연합 과정과 해체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 해체나 붕괴보다는 사회 지속성에 갈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적대 충동을 사회 유지의 한 과정으로 보고 그 긍정적 결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Marx가 갈등의 원인을 중시하고 갈등의 발생에 관련된 변인 분석을 중시한 반면, Simmel은 갈등이 체계 전체나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그 형태와 결과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두 학자의 이론 전개는 현재의 갈등 이론가들에게 통합되지 못한 채 전수되어 현대의 두가지 지배적인 갈등적 시각을 형성하였다. 즉 Dahrendorf를 중심으로 한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Coser를 중심으로 한 갈등 기능주의가 그것이다.

Dahrendorf(1968)는 권력이나 권위와 같은 회소자원들이 갈등과 변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여, Marx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권위분배의 불평등에 갈등의 원인을 두고 있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갈등이 상존하고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Dahrendorf의 이론을, 갈등의 해소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갈등을 생성시킨다는 의미에서 변증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여

전히 구조 기능주의의 영향 속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Coser(1956)는 집단 외부의 갈등이 내부의 방어력과 응집력을 강화 시킨다고 하여, 갈등이 사회체계 내에서 통합성과 적응성의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갈등이 없으면 창의성이 둔화되고 의식의 변화가 정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 집단에서는 그 사회 구조가 경직되어 일단 갈등관계가 일어나면 흡수할 수단이 없으므로 갈등이 폭력화 된다고 하였다.

2) 가족 연구에의 적용

갈등 이론을 가족에 접목 시킨 것은 Engels(1902)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고, 구조기능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Simmel, Coser, Sprey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나, 1970년대에 와서 혹은 이나 여성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갈등 이론을 가족에 접목시킨 연구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Sprey(1969)는 갈등 이론을 가족 연구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학자로서, 권위나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가족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적절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어떤 갈등 관리 방법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가족의 유지와 해체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갈등이론은 결혼의 불평등성에서 나오는 부부관계의 투쟁을 개념화 하는데 유용하며,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역시 설명될 수 있다. 가족 조직의 유형 변화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Collins(1975)는 성, 연령 등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자원의 분배 과정상 갈등을 발생 시키는 데, 이것이 가족 내의 성적 불평등, 세대간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집단간 갈등에 대한 거시적 관점도 추가하였다. 또한 Collins는 '통합적 갈등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서적 자산'까지 갈등 개념에 포함 시켰다. 부부나 가족원은 자신의 정서적 영역을 지키거나 남의 영역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 행동이 특정 방법으로 수행되거나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가족 갈등의 결과로서의 가족의 재조직화는 통합이라는 것

이다.

Farrington과 Foss(1977)는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자연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그러나 가족원의 갈등 표현은 긍정적, 부정적 모든 측면을 포괄하므로 가족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갈등 상대방의 파괴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였고, 가족의 특성상 갈등 표현이 없는 것이 가족원의 만족도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갈등이론적 관점은 가족 내의 이해관계나 권력 혹은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반복 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체계가 더욱 구조화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게 된다. 또한 갈등이론에서는 가족 갈등이 처리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에서의 자원과 권위의 독특한 특성이 파악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가족폭력에의 갈등적 접근은 개인, 집단, 조직체 등을 일치와 평형을 추구하는 체계라기 보다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갈등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체계 유지보다는 갈등관리에 초점을 둔다. 폭력은 어떤 방법이 실패 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강력한 방법이므로, 갈등의 결과로 가족 내에서도 폭력이 일어난다(Strauss & Steinmetz, 1974: 302). 단, 갈등 해소 방법으로 폭력이 쓰여지느냐 아니냐가 기능적이냐 역기능적이냐는 별개의 문제이다(Gelles & Strauss, 1979: 567).

Dahrendorf(1968)는 그의 갈등 모델의 세가지 기본 단계를 갈등, 대결, 변화로 보았다. 그러므로 폭력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대결 단계에서 갈등관리 때문에 깨어질 때 나타나는 갈등 수행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 행태의 갈등이론적 접근은 모든 관계를 갈등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오히려 상이한 유형의 사회적 단

위들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탐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태도는 가족의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탐색하여 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 현상학적 이론

1) 이론의 발달

현상학이란 용어는 19세기 이전에는 넓은 영역에 걸쳐 사용되는 말이었으나, 19세기 초 Husserl에 의해 철학적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고정시킨 이래 사회적 행위의 해석에 있어 의식과 주관적 의미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모든 입장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Husserl(1962)은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 스며 있는 당연시된 세계를 생활세계라 부르고, 그들은 동일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움직이는데 그들 자신의 의식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재에 대한 유일한 확인 방법으로서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사건이 이해되면 이것이 매개되는 기본적 과정, 즉 의식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은 생활세계의 실체와 분리될 때 이해되고,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실재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Husserl은 이러한 의식의 추상적 이론을 성공적으로 전개 시키지는 못하였다. 다만 인간 의식과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이해는 오직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고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Schutz(1967)는 Husserl의 근본적 현상학을 Weber의 행위 이론 및 미국의 상호작용론과 융합시킨 학자이다. 즉 Husserl의 사고에 사람들의 의식에로의 공간적 내성이라는 Weber의 전략을 도입하였고, 상호작용 가운데서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만 행위자들이 동일한 세계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행위자들은 몸짓의 해석을

통하여 타인들의 태도를 추정한다는 Mead의 역할 취득 개념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Schutz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그들이 사회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 사회적 처방, 적합한 행동의 관념 및 정보를 마음 속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세계에서 유효적절하게 행동하면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준거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Schutz의 사고는 의식의 기본적 속성과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현상학을 Husserl의 추상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그의 생활세계관을 상호작용 과정으로 변환시켰다.

2) 가족 연구에의 적용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가족은 행위자의 의도적인 의식 안에 나타나는 바 그대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장(場)이다. 가족 구성원은 그들만의 공유된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 문제 해결책, 사회세계에 대한 관념들을 제공 받는다. 이러한 유형화는 습관적 적용 유형을 만들고 이러한 문화적 유형화가 행위를 결정한다.

가족은 제가꿈의 독특한 기질과 우리 관계, 친밀감, 자율감 등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상이한 개체가 부딪칠 때 갈등과 긴장이 발생한다. 데이팅, 구애, 결혼, 노령화 등 전 과정이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두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만나 과거 경험 세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이러한 차이가 상호보완적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공동의 경험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때 서로가 상호작용 방법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앓을수록 상호작용은 어려워지고 사회 질서도 위협받는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과정이다.

가족 이탈 현상의 경우 구조 기능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로 정의될 수 있으나,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규범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탈 행위는 개인의 경험 세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행위에 대한 반응이 공유된 의미를 가질 때만이 그 행동은 이탈로 정의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일탈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공감적 반응이 어떻게 왜 나오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탈은 나름대로의 두 구조간의 갈등, 또는 구조는 관련되나 일치된 세계 구성에의 실패, 구조와 의미간의 불일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일탈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구조간의 갈등으로, 혹은 관련 구조 내에서 개인의 불일치로 본다. 그러므로 구조의 변화만이 일탈의 해석을 달리하게 할 수 있다.

가족 폭력의 경우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신념이 지배적인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폭력이 습관화된 가족의 해결책 역시 스스로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agelow, 1981: 219). 폭력은 지배, 종속의 상호작용적 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가족원의 위계는 사회 문화적, 경제 혹은 법률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의 구조는 순환적인 것이어서 폭력 후의 친밀성으로 중화되면서 구조가 공고화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힘으로 정서적인 것을 통제해 나가는 폭력 가족의 부정적 구조 인식으로 부터의 탈출이 이루어져야 한다(Denzin, 1984: 507).

인간의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이 감각을 통해 매개되고 정신적 의식에 의해 인식된다면 가족내에서 형성되는 인간 정신의 과정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원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외재적 실재에 대해 어떻게 주관적 감각을 형성시켜 가는지 그 과정이 탐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내적 구조가 어떤 방법으로 유지되고 변화되어 가가가 분석됨으로써 가족의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내는 의식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족원의 행위가 해석될 수 있도록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가족학 분야의 연구는 이론 정립의 당면 과제를 안고 있으며 1950년 이후 체계적인 이론 형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제

한된 영역이긴 하나 중범위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가족 연구 분야의 이론 개발에 개념들로 제공된 대표적인 일반 이론은 많은 단계를 거쳐 변화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다섯가지 일반 이론에 대해서 그 개괄적인 내용과 가족학에서의 적용 결과 등에 대해서 술하였다.

교환이론은 비용과 보상을 근거로 한 고전 경제학의 교환 개념에서 시작하여 행동주의 심리학의 상호작용적 개념으로 완성된 것으로, 가족 연구 분야에서는 부부간, 부모자녀간 등의 가족원간 교환을 중심으로 인간간 상호작용에서의 교환 행위가 분석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모든 인간이 주관적 입장에서 상호작용상의 상징을 가지며 그러한 상징에 의거한 반응을 한다는 개념 하에 발전된 이론인데, 특정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간의 내적인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특히 배우자 선택, 세대관계, 역할과 지위, 가족 권력 등의 연구에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체계 이론은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관련되는 조직화의 유형을 탐색하는 이론으로서, 가족을 외부의 요소와 구분되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 체계 내부와 외부의 관계, 가족원간의 하위체계를 분석하는데 적용된다. 그리고 체계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성격 분석, 가족문제의 체계적 해석 등에 주력한다.

갈등 이론은 제한된 재화와 사회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적대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 이론으로서, 결혼과 가족관계의 불평등성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갈등과 가족 갈등의 차이점과 상호영향, 특히 가족 폭력에서의 갈등적 접근 등이 두드러진다.

현상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의식에 의해 자신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보므로, 인간이 외재적 실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과정에 관심을 두게 된다. 가족에 있어서도 가족원은 제가끔의 독특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

여 감각을 형성시켜 나가므로, 이러한 문화적 유형화가 어떤 행위로써 나타나는지 주목하고 가족원간의 갈등과 차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내 사회화 과정, 부부간의 적응 과정, 인식 전환에 의한 가족 문제의 해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위와같은 가족 이론 형성 과정과 일반 이론의 가족 연구 적용 내용 등을 토대로 가족학의 이론적 접근에 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Nye(1988)는 가족학 분야에서 이론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접근이 시도된 논문이 적은 것을 연구자들의 이론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또는 유용한 기초 이론의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학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조망은 일반 이론의 적용과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언급하여야 한다.

가족 현상을 이해하는데 쓰여진 일반 이론은 매우 여러가지 주제 영역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Hill(1966)이 언급했던 가족학에 적용되는 '만능의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요인이 이성적인 일반화 수준에서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이란 불가능하다. 현재 위치에서의 최선은 가장 적절하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Murran과 Reitzes의 연구(1984)에서와 같이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려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이론들을 상호 접목시켜 분석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학문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 이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이론 개발은 중범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 매우 시험적인 단계의 것이 대부분이고, 귀납적인 방법론으로의 검증 과정이 꾸준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론화를 위한 방법론의 발달과 다양한 변환 이론을 통한 실험적 시도가 계속되어 가족학 이론 형성의 과정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에 대한 뚜렷한 개념화와 그 방향성에 대한 통찰이,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는 현실적 방법

론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진균 외 역.(1989). 사회학 이론의 구조. J.H. Turner 원저. 서울:한길사.
- 2) 최재현 역.(1988). 현대 사회학 이론. 형설출판사.
- 3) 한국 가족학연구회.(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교문사.
- 4) 한남제.(1986).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20집, 46-70.
- 5) Adams,B.N.(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 6) Berardo,F.M.(1980). Decade preview : Some trends and directions for family research and theory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23-728.
- 7) Berardo,F.M.(1990). Trends and directions in family research in the 1980s. *JMF* 52, 809-817.
- 8) Bertalanffy,L.von.(1968). *General systems theory: Essays in its foundation and development*. N.Y.: Braziller.
- 9) Blau,P.(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Wiley.
- 10) Blumer,H.(1969). *Symbolic interactionism*. Englewood Cliffs,N.Y.:Prentice-Hall.
- 11) Broderick,C.B.(1971). Beyond the five conceptual frameworks: A decade of development in family theory. *JMF* 33, 139-159.
- 12) Buckley,W.(1967).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 13) Burr,W.R.,Hill,R.,Nye,F.I.,& Reiss,I.L.(Eds.)(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2). New York: Free Press.
- 14) Burr,W.R.& Leigh G.K.(1983). Famology: A new discipline. *JMF* 45. 467-480.
- 15) Christensen,H.T.(1964) Development of the family field of study. In H.T. Christensen(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Chicago:

- Rand McNally.
- 16) Collins, R. (1975). *Conflict soci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17) Cooley, C.H. (1902) 1956. *The two major works of C.H. Cooley : Social organization and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Glencoe, Ill.: The Free Press.
 - 18) Coser, L.A. (1956). *The social function of conflict*. Glencoe, Ill.: The Free Press
 - 19) Cotton, S.D. & Oransky, K.S. (1980). Systems theory: Movement from a conceptual perspective to a general theory of the family. seminar paper at Florida State University.
 - 20) Dahrendorf, R. (1968).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21) Denzin, N.K.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and ethnomethodology: A proposed syn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922-934.
 - 22) Denzin, N.K. (1984). Toward a phenomenology of domestic,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483-513.
 - 23) Dewey, J. (1939). Experimentation in moral theory. In J. Ratner (ed.), *Intelligence in the modern world : J. Dewey's philosophy*. N.Y.: Modern Library.
 - 24) Edwards, J.N. (1969). Familial behavior as social exchange. *JMF* 31, 518-526.
 - 25) Emerson, R.M. (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335-362.
 - 26) Engels, F. (1902). *The origin of the family :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Chicago: C.H. Kerr and Company.
 - 27) Farrington, K. & Foss, J.E. (1977). The social conflict framework. Workshop paper at NCFR.
 - 28) Ferraro, K.J. & Johnson, J.M. (1983). How women experience battering : The process of victimization. *Social Problems* 30, 325-339.
 - 29) Gelles, R.J. & Maynard, P.E. (1987). A structural family systems approach to intervention in cases of family violence. *Family Relations* 36, 270-275.
 - 30) Gelles, R.J. & Straus, M.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rgration. In Burr, Hill, Nye, & Reiss (Eds.), Vol. 1, 549-581.
 - 31) Giles-Sims, J. (1983). *Wife-beating : A systems theory approach*. New York : Guilford.
 - 32) Goode, W.J. (1959). Horizons in family theory. In R.K. Merton, L. Broom, & L.S. Cottrell (Eds.), *Sociology today* (Vol.1). New York: Basic Books.
 - 33) Heap, J.L. & Roth, R.A. (1973). On phenomenological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354-367.
 - 34) Hill, R., Katz, A., & Simpson, R. (1957). An inventory of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behavior: A statement of objectives and progres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89-92.
 - 35) Hill, R., & Hansen, D. (1960). The identification of conceptual frameworks utilized in family stud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2, 299-311.
 - 36) Hill, R. (1966).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family theory. *JMF* 28, 10-25.
 - 37) Holman, T.B., & Burr, W.R. (1980). Beyond the beyond: The growth of family theories in the 1970s. *JMF* 42, 729-741.
 - 38) Homans, G. (1958).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 597-606.
 - 39) Huber, J. (1973). Symbolic interaction as a pragmatic perspectives: The bias of emergent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274-284.
 - 40) Husserl, E. (1962). *Ideas: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N.Y.: Collier Books.
 - 41)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London: Macmillan ; N.Y.: Dover Publications, 1950.
 - 42) Kuhn, A. (1964). Major trends in symbolic interaction theory in the past twenty-five years. *Sociological Quarterly* 5, 61-84.
 - 43) Kuhn, A. (1974). *The logic of social systems*. San

- Francisco: Jossey-Bass.
- 44) Lasswell, M. & Lasswell, T. (1991). *Marriage & the family*. Wadsworth, Inc.
- 45) Lewis, R.,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Hill, Nye, & Reiss (Eds.), Vol. 1, 265-294.
- 46) Marx, K. (1867) 1967. *Capital*. Harmondsworth, Penguin.
- 47) McDonald, G. W. (1981). Structural exchange and marital interaction. *JMF* 43, 825-839.
- 48)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9) Merton, R. K.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Ill.: Free Press.
- 50) Miller, J. G. (1978). *Living systems*. N.Y.: McGraw-Hill.
- 51) Murstein, B., Cerreto, M., & McDonald, M. (1977). A theory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exchange orientation on marriage and friendships. *JMF* 39, 543-548.
- 52) Mutran, E., & Reitzes, D. 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17-130.
- 53) Newcomb, T. M. (1956). The prediction of interpersonal attraction. *American Psychologist* 11, 575-586.
- 54) Nye, F. I., & Berardo, F. (1966) 1981.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Macmillan.
- 55) Nye, F. I. (1978). Is choice and exchange theory the key? *JMF* 40, 219-233.
- 56) Nye, F. I. (1988). Fifty years of family research 1937-1987. *JMF* 50, 305-316.
- 57) Osmond, M., (1978). Reciprocity: A dynamic model and a method to study family power. *JMF* 40, 49-61.
- 58) Pigelow, M. D. (1981). *Women-battering*. Beverly Hills, Calif.: Sage.
- 59) Richer, S. (1968). The economics of child rearing. *JMF* 30, 462-466.
- 60)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Burr, Hill, Nye, & Reiss (Eds.), Vol. 1, 317-364.
- 61) Safilios-Rothschild, C. (1976). A macro- and micro-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An exchange model. *JMF* 37, 355-362.
- 62) Scanzoni, J. (1979). Social processes and power in families. In Rurr, Hill, Nye, & Reiss (Eds.), Vol. 1, 295-316.
- 63) Schutz, A.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64) Simmel, G. (1950). *The sociology of G. Simmel*. In K. H. Wolff (ed.), Glencoe, Ill.: The Free Press.
- 65) Sprey, J. (1969).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MF* 31, 699-706.
- 66) Sprey, J. (1990) *Fashioning family theory* (Ed.). Sage Publications.
- 67) Sprey, J. (1991) Current theorizing on the family : An appraisal. In A. Booth (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CFR.
- 68) Straus, M. A. (1973).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6), 105-125.
- 69) Straus, M. A. & S. K. Steinmetz. (1974). Violence research, violence control, and the good society. In Steinmetz & Straus (Eds.),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 70) Thomas, D. L. & Wilcox, J. E. (1987) The rise of family theory.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81-102.
- 71) Turner, J. H., Beeghly, L., & Powers, C. H. (1989). *The emergence of sociological theory*. Chicago: The Dorsey Press.